

유아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가정에서의 부모를 통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만 8세까지의 어린이들은 어머니와 떨어져 살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어릴 수록 어머니의 사랑 결핍에서 오는 타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생후 1년간 혹은

3년간 모친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이는 그후에 사랑을 주어도 받아들일 줄 모르고 남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신체 발육이 늦고, 지능도 잘 발달하지 못하며 불안정하고 언어사용능력이 부족하고 추상화, 개념화의 사고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릴수록 부모는 아이와 같이 움직이며 호흡을 같

생활의 지혜

가정에서의 유아교육



이 혜 정

이 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1년까지(1才) 일생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기이며 가장 많이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시기에 인생관이 형성된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Adller). 될 수 있는 대

로 얘기를 불안, 초조하게 하지말고 평화롭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즐거운 수유시간, 수면, 배설, 놀이 그리고 행복한 인간관계가 좋은 성격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생후 첫 1년간을 잘 양육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년에서 2년까지 (2才)

이때에는 언어의 출발기입니다. 주위에서 얘기에게 말을 많이 들려 주어야 말을 많이 배울수가 있습니다. 고운 말 정확한 말, 공손한 말들을 많이 들으면 어린이는 반드시 그것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럼 그리기와 그림책을 통해서 그려진 그림을 보고 이름을 묻거나 이름을 대면서 대단한 흥미를 갖게 되므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음악을 통해서 유아는 몸전체로써 반응을 보입니다.

자주 듣던 노래를 누가 부르거나 TV에서 들려오면 춤도 추고, 멜로디를 흡내내게 되므로 일찍부터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고 자라나면, 그만큼 음악적인 소질을 갖게 됩니다.

2세에서 3세까지 (3才)

이때의 유아는 엄마의 보호에서 만족하지 않고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해 보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즉, 의존에서 도피하려 하고 자기주장도 시작합니다. 마음껏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되 절제있게 해야 합니다.

3세에서 4세까지 (4才)

이때의 유아는 “일종의 완성기”라고도 하고 “모든것의 출발점”이라고도 합니다. 뇌의 발달은 거의 완성에 가깝기 때문에 심신의 발달이 대단히 활발하며 인격형성에도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

는 욕구가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하므로 “무엇” “왜” “어떻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도 받아 주어야 하고 그 질문에 친절하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호기심과 지식욕을 만족시켜 주고,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좋게 합니다.

“엄마 이게 뭐야”라고 물어 보는데 “시끄러” “넌 몰라도 돼” 하는 식의 대답은 유아를 소심하게 하고 자신감을 앓게 합니다.

4세에서 5세까지 (5才)

이때의 아동은 지적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시기를 「발견하는 어린이」라고 부릅니다. 반항심도 강하고 감정도 예민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에는 대근육이 충분히 발달하도록 운동기구나 놀이기구를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의 유아는 잘 울고, 화도 잘 내는, 감정이 대단히 예민한 시기이므로 이 감정을 아름답고, 풍부하게 길러 주어야 합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자아가 강합니다. 자기가 만든것을 보이면서 잘했다고 자랑하고, 인정과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반면에 반항기의 절정과 결론을 맺는다. 무엇이나 제 마음대로 하려하고 반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안돼”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또, 이때에는 반항이 심한데 그 이유는 자기생각, 자기흥미, 자기기분, 자기행동 방식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가장 중요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

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잘 놀다가도 싸움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피차 많이 접근하고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싸움을 방지해서 의좋게 놀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의 잘 잘못을 공정하게 가려서 끝에는 항상 서로 화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애정표현의 방법으로는 칭찬과 인정입니다. 유아의 작은 선행도 꼭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착하다”라고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부모 자신이 착해야 어린이도 착해집니다. 부모의 웃는 얼굴, 공손한 태도, 친절한 말, 인자한 성품을 그대로 아동의 얼굴과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가 아동의 작은 호의나 친절에 반드시 “고맙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자녀는 감사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5세에서 6세까지(6才)

이 때의 유아는 자립적이 되고 무슨 일 이든 확실해 집니다.

침착하게 어른과 이야기 할 정도로 어른스러워 집니다. 이 때의 유아는 자기 주위의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자기의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이 때의 유아기를 완성기라고 부를 만큼 생각하는 것이나 태도 능력에 있어서 성숙해졌기 때문에 「믿음직한 5세아」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신체적으로 느린 성장기에 들어 갑니다. 큰 근육은 다소 발달 되었으나 아직 얼

가장 심각한 공포와 걱정은 어린이가 어른을 지나치게 의지할 때,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인간관계가 성공적으로 안될 때이다. 이런 때에는 사랑한다는 것을 포근한 태도와, 따뜻한 음성과, 말로써 아동을 긴장과 공포 속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마든지 더 발달시켜야 하기 때문에 바깥 놀이를 많이 격려해야 합니다.

또 언어 사용은 훨씬 자유롭게 합니다. 자기의 경험담이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부모나 선생님에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때는 어린이가 어휘를 약 2 천개 정도한다고 합니다. 유아가 언어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집안 분위기를 잘 맞춰주고 부담 없이 대화가 이루어 지도록 부모님은 유아를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 시기의 유아는 걱정을 갖게 되는데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공포와 걱정은 어린이가 어른을 지나치게 의지할 때,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인간관계가 성공적으로 안될 때이다. 이 때는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포근한 태도와, 따뜻한 음성과, 말로써 아동을 긴장과 공포 속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필자 = 금별유치원 교사)